

●연중 제 19주일 강론

조카의 대부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길을 가던 대학생이 이야기 중에 친구를 한 대 쳤는데 맞은 사람이 넘어지면서 뇌를 다치는 바람에 숨졌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나갔던 사람을 시신으로 맞아들여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사고 순간에서 5분만, 아니 단 1초 만이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래서 사고를 피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계를 거꾸로 돌린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서쪽으로 달려가서 지는 해를 붙들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루카 12,39)

만약 내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안다면, 그래서 내게 단 하루 24시간이 남아 있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소중한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분도 있겠지요. 이 세상을 떠날 사람은 남아 있는 가족이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해주고, 남아 있는 가족은 떠날 사람이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해주면서 서로에 대한 용서와 사랑,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관계가 ‘만약’이라는 가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관계 면에서 깨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루카 12,40ㄱ)

그런데 집주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올까요? 김수환 추기경은 ‘새벽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웃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일 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우리

에게 오십니다. 무지막지한 직장 상관의 모습으로, 일을 제대로 못해 애를 먹이는 동료의 모습으로, 지성·감성·의지·외모·부까지 다 갖추어 질투 나게 하는 잘난 사람의 모습으로, 출근길에 마구 끼어드는 알미운 운전자의 모습으로, 마주쳐도 인사 한번 하지 않는 이웃 사람의 모습으로, 불친절한 점원의 모습으로, 피곤한 아내(남편)의 모습으로, 말썽 피우는 자식의 모습으로 ‘...’.

우리에게 불 눈이 있다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생각지도 않은 모습’으로 오시는 주인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을 때 만났던 한 자매님의 나눔이 떠오릅니다. 비가 많이 오는 날 저녁, 기도모임에 참석한 뒤 고속도로로 한 시간 정도 가야 하는 집으로 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비는 이미 그쳤지만 시멘트 계단은 아직 축축하게 젖어 있었는데, 한 맥시칸 노숙자가 15달러만 주면 어디 가서 잠을 잘 수 있겠다며 구걸을 했습니다. 자신의 주머니에는 50달러짜리 지폐가 한 장 있었지만 그 돈은 꼭 쓸 데가 있어 줄 수가 없고, 잔돈은 하나도 없어 난감해하다가 내려오던 교우들에게 그 사정을 말했습니다.

3명이 5달러씩 내면 되겠다 싶었지요. 그리고 5달러를 빌려 달라고 했는데, 교우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서둘러 가버렸답니다. 자매님은 순간 화가 났답니다. 기도모임을 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는 미사예물 20달러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자매님은 그만 앞뒤 생각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노숙자 손에 50달러를 꼭 쥐어주면서 ‘이런 대접받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오늘 밤 따뜻한 곳에 가서 쉬라.’고 사과했습니다.

노숙자는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매님은 그에게 억지로 돈을 쥐

어주고는 차를 타기 위해 황망히 물기 젖은 마당을 가로질러 갔습니다. 얼마 안 가 바닥에서 100달러 지폐를 주운 자매님은 그것마저 그 사람한테 주기 위해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더군요. 그날 그 자매님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루카 12,37ㄱ)

어떤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2독서가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자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났습니다.”(히브 11,8) 아브라함은 오랜 기다림 끝에 사라한테서 약속의 아들 이사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후에 그는 기쁨의 아들, 약속의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믿음이, 기다림이 최고의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련을 즉각적인 순종으로 통과했습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사악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 받은 땅인데도 남의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히브 11,9)에서 보듯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는 언제나 하느님의 부르심과 요구에 즉시 응답할 태세를 갖춘 준비된 자의 모습입니다. 그의 순종은 하느님을 감동시켰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듯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면 즉시 문을 열어드립니다.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 있는 종들!”(루카 12,37ㄱ)
정 세라피아 수녀(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꿈이 있기에

나라고 하여 왜 쓰러지고 싶은 날들이 없었겠는가. 맨몸뚱이 하나로 가장 뿔바닥에서 부대끼면서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고, 쓰러지고 싶었고,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나를 버릴 수 있게 했던 힘, 그것은 바로 스스로에 대한 사랑과 긍지였다. 그리고 아주 오래 전부터 꾸어 왔던 꿈이었다. 꿈은 나를 어둠과 험한 세상에서 빛으로 이끈 가장 큰 힘이였다.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없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리러 뵈올수록 전혀 알 길 없삽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을 듣든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울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없사오니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모며 기뻐하게 하소서.

◎ 아멘.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문

-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 하셨나이다.
- 저희는 수시로 주님을 잊고 때로는 소홀히 하며 거룩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나이다.
- 이제 저희가 주님의 자비를 구하며 청하오니 저희 서부공소가 본당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랑과 일치로 하나 되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 마침내 저희가 본당공동체가 되는 날 모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 아멘.

서부공소 및 본당 소식

◎울뜨레아 야유회
오늘 미사 후 Victoria Park(키치너)에서 갖습니다.
꾸르실리스따는 전원 참석 바랍니다.

문의: 울뜨레아 간사(김현태 요셉)

◎ 2007 본당 신부님 배 골프대회

▶일정: 2007년 8월 20일(월)
10:30-참가자 등록(회비 \$70)/11:30-제1조 Tee Shot / 18:30-골프 종료
19:00- 디너 &시상식(본당 친교실)
▶장소: South Brook Golf Club (905) 692-3592
본당 친교실 공사 상환금 마련을 위한 행사이기도
하므로 여러분의 관심과 더불어 성의 있는 Cash Donation을 부탁드립니다. (접수: 공소회장)
▶ 8월 13일(월) 13:20-Tee Shot(대회장소)

◎책 주문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서적을 본당에서 이번에 주문코저 하오니 책이 필요한 교우는 책 주문자 성명을 적어 빠른 시일 내에 선교부장(박재영 형제)에게 신청 바랍니다

◎여성 꾸르실리주말 251차 참가신청접수
▶일 시: 07년 9월 20(오후6시)-23일(오후6시)
▶장 소: Queen of Apostles Renewal Centre
▶참가비: \$280 ▶마 감: 8월 26일
▶신청및 문의 : 김현태(요셉)간사

◎'본당으로 가는 길' 기도
올해는 저희 서부공소가 창립된지 12주년이 됩니다. 공소가 본당이 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늘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켜보실 것입니다.
모름지기 저희의 정성된 기도와 이루고자하는 마음가짐이 보다 중요한 때 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온전히 모아 마침기도로 '본당으로 가는 길'을 바치겠습니다.

◎성서 공부 의문사항 신부님 이메일주소
koandl92@hanmail.net다.

◎서부공소 인터넷 클럽 안내(가입-일괄 접수중)
▶가입방법: 해외거주자인 관계로 굿뉴스 담당자에게 아이디 3개(중복확인 후 1개 선택함), 비밀번호,실명(한글),현주소, 전화번호,소속본당, 세례명을 메일(goodnews@catholic.or.kr)로 보내시면 즉시 가입을 대신해드립니다. 개별 가입이 원만치 않은 교우 여러분은 기재사항을 서기(한 택종 형제)에게 주시면 일괄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헌금봉헌은 주님께 자신의 정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적당히 골라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준대로 온전히 다 바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정성껏 마음을 모아 봉헌합니다.
(오늘은 교무금 내는 날입니다.)

◎ 매주일 예배하는 성전은 우리가 나눔과 일치의 공동체로 가꾸어 주님의 뜻을 이룩해야 할 거룩한 곳입니다. 항상 깨끗이 사용합시다.

◎ 주간 전례
▶8월14일(화) 오후8시, 콜배사제순교자기념미사
▶8월16일(목) 낮 12시, 연중 제 19주간 목요일
▶8월16일(목) 오후 8시, 연중 제 19주간 목요일
▶8월18일(토) 낮 12시, 연중 제 19주간 토요일

◎ 이번 주 성소후원회 회비 내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내어 주시는 성소 후원회비는 베트남 교구에 \$5,000 보내졌고, 매달 파나마에서 선교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신학생들을 위해 \$500 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신앙대회
일시 : 9월 13일(목)-15일(토)
장소 : 13일, 14일 (예수성심성당에서 특강)
15일 미들랜드 성지 파견미사 및
김대건신부 부조상 제막식
강사 : 배영진(야고보)신부 ·인도출신

◎공소일반공지 ◎
▶고해성사 : 미사 10분전과 미사 직후 고해소앞에서 대기바랍니다
▶성가대원 수시모집 : 문의는 성가대장에게
▶사목회의 : 매월 마지막 주일
▶바느질대회 : 매월 격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울뜨레아 : 매월 첫주일

미 사 전 레
해 설 김직현 차주 해설 이민

화 답 송 주님께서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은 행복하여라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너희는 깨어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오시리라.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1) 나는 믿나이다
봉 헌 (212) 너그려이 받으소서
성 체 (177)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되 장 (480) 믿음으로

독 서
8월 12일 고영호 고기숙
8월 19일 김호철 김창숙
8월 26일 신상우 신계연
9월 2일 석광원 석호영

봉 헌
8월 12일 이상재 이향숙
8월 19일 고영호 고기숙
8월 26일 김호철 김창숙
9월 2일 신상우 신계연

2007년 8월 5일 헌금 내역	
주일헌금:	\$ 672.50
성전건립:	\$ 50.00
Total:	\$ 722.50

2007-32 2007. 8. 12. 연중 제 19주일

주일 미사 주일 낮 11시 30분
▶ 서부 공소 (주일) 오후 4시
▶ 동부 공소 (토) 오후 7시
평일 미사 주일 주보에 공지(화,목,토)
성모 미사 매월 첫 토요일 낮 12시
성 시 간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주일 학교 주일 낮 12시 미사 중
예비자교리 매년 6월-12월, 6개월 교육
유아 세례 매월 마지막 주(미리 신청)
견진 성사 2년에 일회, 1개월 교육
혼인 성사 결혼 6개월 전 면담
고해 성사 미사 전·후
병자 성사 병환 중과 임종 직전
주임 신부 고 원 일 안드레아